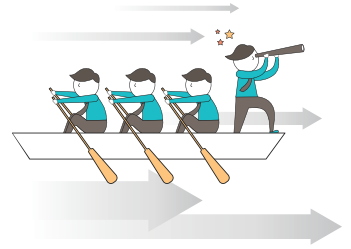


## 2017년 상반기 기계설비건설업계 합동행사 개최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회장 백종윤)와 한국종합건설기계설비협의회(회장 박은동)는 지난 5월 27일 그린힐에서 2017년 상반기 기계설비건설업계 합동행사를 개최했다.





(주)한양 범용희 간사의 진행으로 시작된 이번 행사에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백종운 회장을 비롯하여 정달홍 수석부회장, 이연풍 부회장, 김석환 부회장, 심기석 이사, 박승우 이사, 조태묵 이사, 조현일 정책본부장이 참석했고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이연구 원장이 참석했다.

한국종합건설협의회에서는 박은동 회장을 비롯하여 이용우 자문, 하위용·마규홍·박승철 부회장, 김수환 감사 등 총 25명이 참석했다. 또한 서용근, 이찬우, 조운용, 이동열 명예회원과 박신빈, 김양섭, 김철영, 이진호 이재곤, 공유철 OB회원이 참석했다.

대한설비공학회에서는 박종일 전임 회장, 홍희기 차기회장, 김용찬 교수, 신영기 교수 등이 참석했다. 설비설계협회에서는 변운섭 부회장과 조종선 파시브이엔지 대표가 참석했다.

초청인사로는 NH공사 배호영 처장과 유국현 부장, 이상네트웍스 조원표 대표와 김형철 상무가 참석했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백종운 회장

이날 행사에서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백종운 회장(대한기계설비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기계설비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설비인들 각자의 조직에서 고생 많다는 것 잘 알고 있다. 요 몇 달 사이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 특히 새 대통령이 된 후 많은 변화가 있어서 세상이 이렇게 바뀔수 있구나를 실감하고 있다. 앞으로 기계설비인들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도 지난 3월 협회 10대 회장이 된 후 협회를 조금씩 바꾸고 있다. 협회는 기계설비인들의 숙원인 기계설비 관련법 제정을 추진하기 위해 마음 먹고 있다. 기계설비인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 힘들지만 늘 자부심을 갖고 서로 도와주고 아껴주는 기계설비가 되자.”고 강조했다.



한국종합건설기계설비협의회 박은동 회장

한국종합건설기계설비협의회 박은동 회장(대우건설 상무)은 “계절의 여왕 5월에 기계설비인들을 모시고 화합을 다지는 합동행사를 개최하게 돼 반갑고 고맙다”면서 “기계설비업을 하시는 모든 분들의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하여 서로 소통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많이 만들고, 오늘의 터전 위에서 후배들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운동 결과에 대한 시상 및 추첨을 통한 행운상 등 푸짐한 상품과 함께 시상을 하여 참석자 모두를 즐겁게 했다. 또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건배를 제의하는 등 기계설비건설업계의 친목과 단합을 다지고 우정을 나누었다. 🍷



종합건설협의회 참석자 전원이 앞에 나와 인사를 하고 건배를 제의했다